

국립순천대, 전남교육청과 지역인재 양성 위해 손잡았다

고교학점제 대비 '꿈키움캠퍼스'로 실험·실습 교육 제공 전남교육청 협력, 고교-대학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예정

국립순천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전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인 「꿈키움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꿈키움 캠퍼스」는 단위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소인수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를 고교-대학이 연계하여 개설 운영하는 전남형 공동교육과정이다.

순천대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대학 기숙사를 개방하여 3박 4일의 합숙 과정으로 「꿈키움캠퍼스」를 운영하였다. △인공지능 수학 △공학 일반 △매체 미술(실기) △패션디자인 기초(실기) △생명

과학 실험(실기) 등 총 5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전남 고교생 74명이 대학의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실험·실습 위주의 강의를 통해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하였다.

또한, 순천대학교는 꿈키움캠퍼스 외에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인 순천·광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순천지역 학생들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개인·대인 운동 △드럼 △음악 실기 등 단위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예술·체육 실기 과정 3개 과목을 개설·운영하였으며, 광양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광양 관내 학교에서 △고급화학 △고급생

명과학 등 2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소질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순천대 소속 교원과 협력 교사가 함께 진행하며, 현재까지 순천지역은 42명, 광양지역은 21명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순천대는 오는 12월까지 순천교육지원청과 5개 강좌(물리실험, 공학 일반, 마케팅과 광고, 건축 일반,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일반) 광양교육지원청과 1개 강좌(화학 실험)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대 고교교육협력관실 선승현 실장은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한 대학-교육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함평영화학교, '디지털 새싹 캠프' 실시



함평영화학교에서는 지난 22일과 24일 이틀간 '디지털 새싹 캠프'를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학생들이 SW, AI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될 디지털 새싹 캠프에 참여할 학급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선정되어 무료로 진행되었다.

초등은 실과 교과 연계로, 중·고등은 정보교과 연계로 실시된 캠프는 총 18명 학생이 '나만의 반려로봇 만들기'의 주제로 총 8차시로 이론 2시간 실습 6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 노트북, 파이보, AI Cloud 플랫폼, AI 솔루션, QR 코드 카드, 교재 등의 학습자료를 준비해서 로봇과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 응용, 반려로봇 제작 등의 단계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암고, 일본 글로벌 인재 양성 문화캠프 실시



영암고등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일본에서 글로벌 문화캠프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글로벌 문화캠프는 해외의 역사 유적지

세계 속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탐방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고 세계 속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영암군의 지원을 받아 교내 학교생활 우수 학생 20명이 영암고등학교를 대표하여 참가하였으며 영암의 대표 인물인 왕인박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일본의 오사카 및 교토지역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 및 역사교육을 받아 방문하는 곳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배우는 등 글로벌 문화캠프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글로벌 문화캠프는 일본 오사카·교토를 방문하여 오사카 성, 청수사, 가이유칸 수족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다. 특히 일본 하라카타시에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를 방문하여 영암의 대표인물이자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수한 왕인박사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일본에 미친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뿌리 깊은 관련을 가진 일본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며 글로벌 인재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 수목 통합 관리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4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던 학교 수목 관리를 교육청에서 맡아 통합해 운영한다.

지난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 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관내 모든 학교의 수목관리 시설사업은 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목관리 계약은 매해 1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30~40교씩 묶어서 진행된다. 또 시교육청은 이를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각 학교가 3년 주기로 수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목 관리가 이뤄지고 동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녹색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슬비 기자

보성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성을 가꾸고, 정서를 다독이는 학습 코칭' 주제로 진행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9시간에 걸쳐 학습코칭단 8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인성을 가꾸고, 정서를 다독이는 학습 코칭'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첫날 '배추 프로젝트'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저마다의 아름다운 덕목을 찾아주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성

덕목을 함양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법을 익혔다.

둘째 날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를 위한 미술치료의 적용'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HTP검사, KFD(동적 가족화)와 같은 진단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질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심리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실습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